

보도시점 2024. 5. 23.(목) 17:30 배포 2024. 5. 23.(목) 16:00

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·주거·의료·교육 등 세심하게 지원

- 홍두선 기획재정부 차관보, 자립준비청년과의 간담회를 통해 일자리·주거 등 애로 청취
- 기재부·복지부·국토부 등 관계부처 청년 보좌역도 동행하여 현장 소통 강화

홍두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5월 23일(목) 오후, 충남 자립지원 전담기관* (충남 아산시)을 방문하여 기관 및 청년주거공간을 둘러보고, 자립준비청년 및 현장 전담인력과 간담회를 통해 일자리·주거 등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였다.

*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·도에 설치

이번 간담회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의견과 건의사항 수렴 등 현장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, 자립준비 상황을 보다 세심하게 챙길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·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 및 청년보좌역과 함께 진행*하였다.

* 5.8일 출범한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과 함께 '민생현장동행팀' 구성

자립준비청년(舊 보호종료아동)은 만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 위탁 보호가 종료된 청년(단, 본인 희망시 24세까지 보호연장 가능)을 말하며,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수당 지급단가 인상 및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, 대학 진학·장학금 지원, 의료비 지원 등 범부처적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.

홍 차관보는 “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자 책무”이라고 강조하며, “홀로서기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, 기부·멘토링 등 민간의 다양한 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기획재정부 청년정책과	책임자	과 장	박은영 (044-215-8580)
		담당자	사무관	송기선 (steamship@korea.kr)
	기획재정부 민생안정지원단	책임자	팀 장	강창기 (044-215-2861)
		담당자	사무관	김민진 (minjin11@korea.kr)
협조 부서	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	책임자	과 장	임아람 (044-202-3430)
		담당자	사무관	이예진 (yejin118@korea.kr)
	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	책임자	과 장	김도곤 (044-201-4530)
		담당자	사무관	유근명 (rmsaud0411@korea.kr)

